

대각회 권리보장-선학원 권리제한 ‘희비’

‘대각회 특별교구 입법예고’ 의미

대각회는 법인 지원 체계에 안착
본사주지, 이사회 추천으로 임명
선학원, 파격제한 거부 탈종 수순

종단이 재단법인 대각회의 운영관리에 관한 독립성을 부여하는 특별교구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대각회가 종단의 법인 지원 체계에 안착하게 됐다. 반면 대각회와 함께 대표적인 사찰보유 법인으로 꼽히는 재단법인 선학원은 종단과 끊임없이 갈등관계를 지속하고 있어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14일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특별교구’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147개 사찰을 보유하고 있는 대각회의 재산권과 운영관리권 등에 관해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탈종단화의 길을 걷고 있는 선학원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앞서 종단은 지난해 9월 대각회와 △특별교구 지정 △중앙총회의원 2석 배정 등을 합의했고, 2개월만인 11월 제200회 중앙총회 정기회에서 대각회를 특별교구로 지정했다. 이번 제정안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이며, 종단은 대각회에 대해 직능대표 조정 등을 통한 중앙총회의원 의석 배정을 추진하고 있다.

선학원에 대해서는 △별반된 이사 지위 원상회복 △특별교구 지정 △중앙총회의원 2



대각회 특별교구 소재지 서울 봉익동 대각사.

석 배정 △원로의원 1석 배정 △분원장급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회복 △법인 정관 변경 승인조항 및 현황보고 의무조항 적용 예외 등 보다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해놓고

있다. 그러나 선학원은 정관 변경, 자체 승려 증 발급 등의 조치를 취하며 탈종단의 수순을 밟아왔다. 불교계 일각에서는 일부 이사들이 선학원을 전횡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대각회 특별교구법 제정안은 특별교구의 명칭과 소재지, 소속사찰, 소속 사찰 주지 임명, 특별교구 본사 주지, 분담금소속사찰의 권리와 의무, 분담금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대각회 특별교구는 서울 대각사(서울 종로구 봉익동2)에 두도록 했으며, 대각회에 재산과 사찰을 등록한 사찰을 ‘대각회 특별교구 소속 사찰’로 규정하고, 사찰 명칭 앞에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문구를 표기하도록 했다. 법인 이사회의 권한을 대폭 인정하고 있는 점은 특이할만하다. 대각회 소속 사찰 주지와 본사 주지에 대해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것은 물론, 이사회의 결의와 요청으로 본사주지에 대해 총무원장이 면직할 수 있도록 했다.

본사주지는 산중총회법에 명시된 본사 주지 후보 자격과 같이 ‘법계 종덕 이상, 연령 만70세 미만’의 승려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임기는 4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특별교구 지정에 따라 종단에 중앙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며, 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우편이나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각각 총무원 기획실과 총무부로 하면 된다.

박봉영 기자 bypark@ibulgyo.com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감사실 설치, 홍보국 신설...‘총무원법 일부개정’

현대사회 변화 부응 ‘조직개편’ 골자
입법예고 10월26일까지...의견수렴



관 업무인 사찰 분담금 및 예·결산 업무를 총무부로 이관 △홍보국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기존 감

사국을 감사실로 승격해 총무원장 직속 기구로 둔 점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개정안에 따라 감사실은 △교구본사, 직영사찰, 특별분당사찰, 중요 문화재보유사찰에 대한 재무감사 △사찰 재산 처분의 타당성 조사 △중앙총무기관과 산하기관의 감사 및 재정적 문제에 대한 특별감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또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재가전문인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앙·교구 균형발전을 위해 사찰업무를 총무부로 통합한 점과 종단의 주요 정

책 홍보를 확대, 강화하기 위해 홍보국을 신설한 점도 눈에 띈다. 이밖에 “국 이하 직제에 대한 사항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조직변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총무원 기획실은 “종단의 조직 구조는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중앙총무기관의 외형을 만들었으며, 2005년 ‘팀제’로 개편한 이후 처음 시행하는 변화”라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적인 총무행정과 중앙교구의 균형발전 등 향후 중앙총무기관의 전체적인 조직개편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 개정의 의미를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며 의견 제출은 우편이나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총무원 기획실로 하면 된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대중 눈높이 맞춘 ‘화쟁’ 안내서 발간

“삶속에서 실천하는데 도움 되길”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화쟁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화쟁 안내서가 나왔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스님)가 최근 화쟁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지난 5년 동안의 화쟁위원회 활동을 담은 〈화쟁(和靜), 인류의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몸짓〉을 발간했다. 특히 이번 안내서는 화쟁의 출범 이후 처음 출간한 소책자로, 현대 사회 갈등 문제를 화쟁 사상으로 풀어보고 이를 현장에서 몸소 체험해 온 화쟁위원회 활동 과정을 재가불자나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수록하고 있다.

화쟁이란 무엇인가, 인도 마하트마 간디 등 화쟁의 선각자들과 그들의 실천,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 사태에서 있었던 화쟁위원회 역할, 화쟁의 방법론, 불교와 화쟁 등 다양한

사례 제시와 해설을 담아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화쟁 사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화쟁위는 소책자 발간을 통해 화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활발한 소통을 이끌어내길 기대하고 있다. 화쟁위 관계자는 “화쟁에 대한 사회적 필요와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다루고 있는 서적이나 연구물들이 전무한 상황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화쟁을 알리고자 소책자 발간을 기획하게 됐다”며 “소책자를 통해 전문가들의 후속 연구가 활발히 이어지고 보다 많은 이들이 삶의 현장에서 화쟁을 탁마(琢磨)하고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소책자는 교구본사를 비롯해 전국 50여 개 사찰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점견실에서 유디트 라즈 인도 하원의원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유디트 라즈 인도 하원의원, 총무원장 스님 예방

양국 불교문화교류 방안 ‘환담’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점견실에서 유디트 라즈 인도 하원의원의 예방을 받고 한국과 인도 불교교류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유디트 라즈 의원은 “인도 내에서 한국불교의 움직임이 많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인도와 한국불교 교류, 한국 불자 국회의원의 인도 성지순례, 문화 및 교육 교류 등에 대해 종단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 스님

은 유디트 라즈 의원 일행의 방문을 환영하며 “불자 의원들로 구성된 정각회가 있으니 (성지순례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종단 차원에서 양 국가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예방에는 유디트 라즈 의원을 비롯해 로빈더 사츠데브 인도 NGO 이매진디아 (IMAGINDIA) 대표, 이희구 한·인도 친선협회 회장, 송재성 한·인도 친선협회 대표 등이 배석했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관음사 11월13일 주지후보 선출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오는 11월13일 열린다. 제23교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종호스님)는 “오는 11월13일 오후1시 관음사에서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의 간을 안건으로 한 산중총회를 개최한다”고 21일자로 공고했다.

현 주지 성효스님의 임기는 오는 12월13일

만료된다. 주지 후보자 입후보 자격은 법계 종덕 이상, 연령 만 70세 미만의 비구로서 △2년 이상 중앙총무기관 국장급 이상 총무원 △8년 이상 말사 주지 △4년 이상 중앙총회의원 △4년 이상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 총무원 △20만 거 이상 성만 △10년 이상 강원 또는 울원 교직자 등으로 재직할 경력 중 하나라도 있으면 가능하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비구니승가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삼보전에 지극한 정례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비구니 원로 대덕스님들을 비롯해서 비구니회장 선거가 어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제10대 전국비구니회 집행부 및 대중스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예를 올립니다.

이번에 전국비구니회장 선거를 통해 저는 ‘제11대 전국비구니회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구니 승가의 변화를 염원하는 비구니 스님들의 열망이 투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비구니의 권익향상을 위해 일하는 전국비구니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종단발전의 한 축으로서 비구니 승가가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야할 길은 첫째도 화합이요, 둘째도 화합입니다.

부득이하여 선거를 통해 당락을 결정하긴 했지만 다 같이 비구니 승가의 발전을 염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승자와 패자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선의의 경쟁을 함께 한 자민스님의 공약도 수렴하여 심부 비구니회의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 격언처럼 비구니 승가를 둘러싼 수많은 난제를 우직하게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초석을 다지며,

원칙을 세워 전국비구니회의 위상과 청정성이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자만하지 않고 제방의 비구니스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초심을 잃지 않는 전국비구니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만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6천여 비구니스님들의 관심과 지지는 전국비구니회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수행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만드시 비구니들의 관심점이 되고 시대의 흐름과 함께 호흡하는 전국비구니회로 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모두 화합의 큰 물줄기를 만들어 비구니 승가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갑시다.

그동안 고단한 여정을 함께한 선거대책위원회 중령 및 고문스님, 후보추대위원 이하 모든 스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총회에 참석하신 제방의 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기2559(2015)년 10월 12일

제11대 전국비구니회장 당선자 육문 합장

